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

- 데고메(手込め)소설로서의 『야부노나카(藪の中)』를 중심으로 -

감영희*
kamyol110@tu.ac.kr

<目次>

- | | |
|-------------|----------------|
| 1. 서론 | 4.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 |
| 2. 미소지니적 사고 | 5. 결론 |
| 3. 여성배제 의식 | |

主題語: 아쿠타가와(Akutagawa), 젠더(gender), 데고메(rape), 야부노나카(Yabunonaka), 마사고(Masago)

1. 서론

아쿠타가와와 데고메 소설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야부노나카(藪の中)』(『신초(新潮)』 1922년)일 것이다. 지방행정 관청의 무사인 가나자와 다케히로(金沢武弘)의 죽음을 둘러싼 7인의 진술로 이루어진 이 소설은, 도적 다조마루(多襄丸)에게 다케히로의 처 마사고(真砂)가 강간당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면적 시점에 의한 동일한 사건을 그려냄으로써, 살인과 강간이라는 사실에 대한 네 명의 목격자와 세 사람의 당사자가 고백하는 증언 형식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 중 체포된 도적 다조마루, 기요미즈데라에서 참회하는 마사고, 무녀의 입을 빌려 나타난 다케히로의 영혼 자백은 핵심적 단락이 되고 있다.

다원적 초점¹⁾에 따른 모순으로 하여, 하나의 진실에 도달할 수 없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나 마사고에의 강간사건이, 다케히로의 살해나 혹은 자살의 직접적 계기가 되고 있음은 틀림없다. 각각의 증언이 모순되고 복잡하여 일관성이 없으며 그 진상을 알 수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그 진상규명을 위한 논문의 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이 단편이 명작인 까닭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篠崎美生子(2005)「資料室」『芥川龍之介』翰林書房, pp.48-50

잘 알려진 것처럼 『야부노나카』의 하나의 제재가 된 전거(典據)작품인 『곤자쿠모노가타리 슈(今昔物語集)』 권29의 23화 「具妻行丹波国男於大江山被縛語」²⁾에서는, 여행 중이던 부부에게 닥친 불행이 다케히로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결정적 사건으로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야부노나카』에서는 데고메 소설로서 주인공들의 갈등 속에 진상을 알 수 없는 전개를 통해 새로이 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쿠타가와와 창작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조마루의 마사고에의 강간과 그것을 지켜보는 다케히로의 시점을 통해, 작가 아쿠타가와와 여성에 대한 젠더의식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은 대개의 경우, 다조마루와 다케히로의 시점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 두 남자 주인공이 마사고를 바라보는 인식은, 곧 남성이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아쿠타가와를 새로이 바라볼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의 여성혐오적 사고를 말할 때 미소지니(misogyny)라는 표현을 쓴다. 즉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혐오, 여성에 있어서는 자기혐오, 그러한 심성을 미소지니라고 한다.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에 여성불신과 의혹의 모티브가 잠재(潛在)되어 있다면, 그러한 경향이 가장 잘 반영된 작품은 『야부노나카』가 아닐까 한다. 『야부노나카』를 데고메 소설로서 재조명함으로써, 과연 아쿠타가와가 여성혐오적 사상계보를 잇는 작가인지,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원문인용은 『芥川龍之介全集/第8巻』 岩波書店(1996년)에 의한다.

2. 미소지니(Misogyny)적 사고

미소지니는 여성혐오라고도 하며 여성이나 여자다움에 대한 멸시나 편견, 증오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혐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misos 증오」 「gyne 여성」에서 유래한다. 더불어 미소지니적 경향이 있는 남성을 「미소지니스트」라고 한다.³⁾

미소지니는 통상 여성혐오로 여성을 싫어하는 경향을 말한다.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성혐오, 여성에 있어서는 자기혐오, 그러한 심성을 미소지니라고 한다.

사회학자이며 가족사회학이나 젠더론, 여성학의 대표주자라 할 우에노 지즈코(上野千鶴子)는 미소지니를 가부장제의 기본원리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다.⁴⁾ 다만 미소지니라는 개념자

2) 「妻を具して丹波国に行く男、大江山において縛らるること」

3) 대조적으로 남성혐오를 의미하는 말은 「미선들리」라고 한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rjatorldf](http://kin.naver.com/qna/detail.nhn(rjatorldf)

4) 上野千鶴子(2010) 『女ぎらい - ニッポンのミソジニー -』 紀伊国屋書店, pp.7-21

체가 주관적·내면적 감정이나 가치관을 문제로 삼기 때문에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에노는 또한 미소지니적 성향을 가진 남성은 호색이 많다고 지적한다. 씨에 따르면, 여성을 섹스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남성은 호색가이면서 여성혐오 내지는 여성중오 사상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호색과 여성 혐오자는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성혐오라는, 같은 뿌리를 가진 동전의 양면 즉 앞면과 뒷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인물을 예로 들자면, 문학자 오쿠모토 다이사부로(奥本大三郎)씨에 따르면, 1954년 단편 『취우(驟雨)』⁵⁾로 제31회 아쿠타가와(芥川)상을 수상한 요시유키 준노스케(吉行淳之介)에 대해 그의 문학 스테마처럼 여성관계에 있어서도 그 인생은 언제나 여성들로 물들어 있다고 하고 「틀림없는 여성혐오사상 계보로 이어지는 작가이다」⁶⁾라고 지적하였다.⁷⁾ 또 「여성혐오사상을 가졌다는 것은 아무래도 여자에게 무관심할 수 없다」⁸⁾는 것이 약점이라고 기술하고 있다.⁹⁾

남성 측의 미소지니는, 여성에 대한 성적폭력이나 성희롱, 경제적 차별 등이 더해진 광고나 영화, 문학 원전 등에서의 여성폄하 표현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여성 측의 미소지니로서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 거식증(拒食症) 등의 섭식장애(摂食障害), 성적기능 부전, 우울증, 여성이라는 것에 기인하는 열등감이나 무가치감이라는 감정의 형태를 통해 표현된다.

또 부권제적 사회에서는 그 사회구조 속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미소지니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종교에서의 미소지니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처럼 부권제적 종교에서 보다 명확한 미소지니를 보여준다. 이러한 종교사회에서 여성은 부정한 요소의 상징으로서 혹은 그 원흉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술은 미소지니적 표현이라고 평가된다.

5) 『文学界』쇼와29년 2월. 제31회(1954년 상반기) 芥川賞 수상작.

줄거리: 대학졸업 후 샐러리맨으로서 3년째 독신인 야마무라(山村英夫)에게 있어 사랑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다. 창부(娼婦)마을에 다니면서 유희 정도로 그치는 것이 정신위생에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숙해져 버린 미치코(道子)라는 창부에게 왕래하는 동안 애정을 느끼게 된 야마무라는 그러한 감정에 방황하게 된다. 어느 날, 미치코의 방에서 거리를 내다보고 있는데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자, 사내들을 부르는 창부들의 교태어린 목소리가 거리를 채웠다. 그 모습에서 야마무라는 정서를 느끼게 된다. 다음 날 다방에 들린 야마무라와 미치코는 창 너머로 한 그루 아카시아나무에서 녹색 잎사귀가 일제히 떨어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마치 녹색의 취우였던 것이다. 그 날은 동료의 결혼피로연이 있었다. 피로연 후, 다시 야마무라는 미치코를 찾지만 먼저 온 손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렴이 쳐진 가게로 들어가 술과 삶은 게를 주문한다. 미치코를 소유하는 수많은 남자들을 생각하며 질투의 정을 느끼는 것도 이제 그런 감정에 길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득 젓가락 끝에 반응이 없는 것을 느끼고 내려다보니 스키로 만든 젓가락이 두 동강 나 걸려있다.

6) 「まぎれもなく女性嫌悪思想の系譜に連なる作家である」

7) 上野千鶴子씨는 미소지니적 경향이 강한 작가로서 요시유키 이외 永井荷風를 들고 있다.

8) 「女性嫌悪思想の持ち主というのは、どうしても女に無関心でいられない」

9) 奥本大三郎(1981)『男の領分-『驟雨』詳論-』『ユリイカ』青土社 p.61

또 우에노는 「온나기라이(女ぎらい)」¹⁰⁾라는 책을 펴내었다. 모든 남자는 여자를 싫어하며 남자를 좋아한다는 세지웁(Sedgwick)이 제창하는 호모소셜(Homosocial)과 그 내용면에서 유사하다.¹¹⁾ 호모소셜이란 동성애 혐오를 의미하는 호모포피아(Homophobia)¹²⁾와 여성혐오인 미소지니를 기본적 특징으로 하는 남성끼리의 강한 연대관계를 의미한다. 그 자체 동성애적인 것이면서 남성 동성애자를 배제하며, 이성애자 사이에 폐쇄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남성들은 가능하면 남자들끼리 일을 하고 싶다는 사고가 그것을 반영한다. 남자 친구가 결혼하여 처자를 갖게 되면, 갑자기 여성의 권력사회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그러한 예일 것이다. 「세상의 바보같은 여자들」이라고 매도하는 것, 왜 남자들은 여자를 바보로 취급하면서 여자와 만나고 결혼하는 것일까. 여성들은 그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 대답은 「호모소셜은 미소지니에 의해 성립되며 호모포피아에 의해 유지된다」는 공식으로 깨운치는 않지만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의 연대는 남자가 아닌 것(아녀자와 동성애자)을 차별하고 배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남자는 남자 중심 사회 안에서 승인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적어도 한 사람의 여성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미소지니적 사고는 여성들 중에서도 있다. 즉 「여자는 남자에게 선택받음으로써 비로소 여자」 「여자 자신의 욕망은 남자의 욕망에 맞춤으로써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여자를 싫어하는 것이 미소지니적 사고라고는 하지만, 미소지니적 사고를 가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 역설적 표현처럼 생각되었지만, 극히 포괄적인 여성멸시가 미소지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좋은 여자, 예쁜 여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 남자」가 무엇보다 남자 집단 중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여전히 여성은 본래 남자들이 평가하여 쟁취하는 획득물이라는 처지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좋은 여자, 예쁜 여자」라는 것은 그 자체 혹은 여성자체의 가치보다도, 여자는 남자에게 선택됨으로써 여자 자신도 자신이 「좋은 여자, 예쁜 여자」라고 생각한다.

미소지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 내면적 감정이나 가치관을 문제 삼고 있으므로, 미소지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이 용어 자체는 인간의 태도를 기술하는 현상적 개념적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어떤 심리학적 이론적 기술을 함축하고 있지는

10) 上野千鶴子(2010)『女ぎらいーニッポンのミソジニー』紀伊国屋書店、p.126

11) Sedgwick, Eve K.(2001)『男同士の絆ーイギリス文学とホモソーシャルな欲望』上原早苗・亀澤美由紀譯、名古屋大学出版会、p.362

12) Homophobia: 동성애 혹은 동성애자에 대한 공포감·혐오감·거절·편견 또는 종교적 교의 등에 기초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

않지만, 병리학적으로 본다면 여성혐오증으로 번역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을 혐오하거나 싫어하게 되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정의로서, 프로이트(S.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사고에서는, **빼놓아진 강력한 성적 억압의 산물로 보고 있다.**¹³⁾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미소지니적 사고에 따른 아쿠타가와와 마사고像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보자.

우선, 「다조마루의 자백」 단락에 나타난 마사고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정리하며, 이에 대해서는 즐고 『아부노나카』 소고(小考)-「다조마루의 자백을 통해 본 마사고像」¹⁴⁾을 참조한다. 먼저 「다조마루의 자백」 단락에 드러나고 있는 다조마루와 남편 다케히로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조마루의 입장을 보자. 처음 다조마루는 마사고를 강간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였다. 즉 마사고에 대한 관심은 그 현장에만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욕정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상대인 다케히로를 속이고 불시에 급습하는 수법을 취하였지만, 마사고를 「처로 삼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자, 그때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비겁한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다. 다조마루는 마사고를 「여자 보살(女菩薩)」 같다고 하여,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신앙의 대상으로까지 비유한다. 이 점에서 다조마루의 마사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마침내 다조마루는 다케히로와의 결투를 통하여 마사고를 쟁취하려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둘째, 남편 다케히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다케히로는 자신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다조마루에게 속임을 당하고, 처 마사고의 운명도 다조마루의 손에 좌우되게 된다. 마침내 마사고가 다조마루에 의해 강간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기에 이른다. 나무에 묶인 채 그러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던 다케히로의 입장에 대해서는 「무녀의 입을 빌려 나타난 남자의 영(靈)」 단락에 언급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다케히로는 삼나무에 묶여있으면서도 마사고를 계속 응시하고 있으며, 질투로 몸부림치며 마사고에게 무한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이 단락에서는 다조마루 역시 남편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고자 변심한 마사고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좋은 감정은 잃고 있다.

그럼 「다조마루의 자백」 「기요미즈테라에 온 여자의 참회」 단락에서 보여진 마사고의 행동을 통한 심리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13) 인지심리학적으로는 잘못된 인지, 행동주의로는 이성과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학습, 아들러(A. Adler)의 개인심리학에서는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에서 나온 파생물로 보고 있으며, 정(C. G. Jung)의 분석심리학에서는 남성의 여성적인 측면인 아니마(Anima) 부정이라는 등의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다.
 14) 김영희(2015) 「아부노나카 소고찰(1)-다조마루의 자백을 통해 본 마사고像」 『일본근대학연구』 第48輯 p.214

「다조마루의 자백」단락에서 마사고는 자신을 강간한 후 떠나는 다조마루를 향해 미치광이처럼 매달리며 「당신이 죽든지 남편이 죽든지, 어느 한 쪽이 죽어 주세요. 두 남자에게 수치를 보인 것은 죽기보다 괴로워요」¹⁵⁾라고 하였다. 즉 마사고는 다조마루의 죽음에 이어 남편 다케히로의 죽음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둘 중 어느 한 쪽의 죽음을 바라는 것이다. 또한 「어느 쪽이든 살아남은 남자를 따르겠다」¹⁶⁾고 덧붙인다. 마사고는 원래 다케히로와 부부였다. 따라서 이 점에서 마사고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남자는 바로 다조마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마사고의 소망은 단순한 어느 한쪽의 죽음이 아닌, 다조마루를 만류함으로써 다케히로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고는 다조마루와 다케히로와의 격투 도중 사라진다. 만일 살아남은 남자를 따르겠다고 마사고의 말이 진실이었다면, 그 자리에 남아서 그 결말의 행방을 지켜봐야 했다. 그야말로 마사고의 발언은 다조마루와 다케히로를 싸우도록 만드는 방편이며,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림으로써 살아남은 자에게 모든 죄를 지우고자 한 목적성향을 알 수 있다.

다음 「기요미즈테라에 온 여자의 참회」 단락은 마사고가 다조마루에게 강간당한 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강간당한 원인이 남편 다케히로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마사고가 어떠한 사고(思考) 위에 행동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자.

여기서 마사고 역시 자신을 강간한 다조마루보다 그것을 지켜 본 다케히로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살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마사고는 강간을 당한 후에도 스스로의 처지를 한탄하기에 앞서 「남편은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을까」¹⁷⁾ 라고 남편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조를 잃은 자신보다도 상처받은 남편의 자존심을 염려하는 의사표현이다. 강간을 당한 다음이지만, 자신을 육보인 다조마루가 남편을 바라보며 조소하듯이 웃는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다케히로의 몸에 감긴 밧줄이 한층 조여지고 있는 상태에 신경 쓰는 여유조차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마사고가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다케히로의 멸시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본래 다조마루가 다케히로에게 비웃음 섞인 조소를 보낸 것은, 다케히로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다조마루의 거짓말에 속아 처를 지켜주지 못한 잘못에 있다. 즉 다조마루의 다케히로를 향한 조소어린 시선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다케히로가 마사고를 멸시하듯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

15) 「あなたが死ぬか夫が死ぬか、どちらか一人死んでくれ、二人の男に恥を見せるのは死ぬよりもつらい」

16) 「その内どちらにしろ、生き残った男に連れ添ひたい」

17) 「夫はどんなに無念だったでせう」

것인가. 다케히로는 스스로가 자초한 이 참사를 후회하고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조마루로부터 받은 멸시의 시선을 그대로 마사고에게 되돌리고 있다. 그것은 마사고가 강간당한 직후에도 남편 다케히로를 염려하고 그 가까이 다가가기려던 중의 일이다. 마사고에게 다케히로의 멸시하듯 차가운 태도는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고는 「저는 남자(다조마루)의 발에 차인 것보다도 그 눈빛에 맞은 듯이 저도 모르게 무언가를 외치고는 마침내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¹⁸⁾라고 말한다. 마사고가 다케히로의 시선에 분명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구나 마사고는 다케히로를 단도로 찌르기에 이른다. 찌르기 전 마사고는 「한 번 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목숨을 제게 맡겨주세요. 저도 곧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¹⁹⁾라는 확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케히로는 여전히 멸시하는 태도로 「죽여라」²⁰⁾라고 한마디 내뱉는다. 그저 「죽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멸시하는 태도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마사고는 다케히로에게 여전히 멸시당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소지니라는 것은 여성혐오라는 의미이지만, 극단적으로 그것은 여성멸시라고 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른다. 마사고를 통해 남성에 의한 여성멸시. 그리고 여성에게는 자기혐오를 의미한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구조와 그 영향 아래 있는 남성·여성 의식·행동을 상세히 분석해 보면, 여성을 실제로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남성들의 실태를 다조마루와 다케히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가부장제 감시 하에 있는 일본의 가족제도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남성들의 그 뒷면에는 여성멸시와 자기현시(自己顯示)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3. 여성배제 의식

본 절에서는 『아부노나카』속 마사고를 통해 그려진 남성들의 여성배제 의식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다조마루에게 있어, 아마시나(山科) 역참에서 우연히 한 여인의 얼굴을 보게 된 것은,

18) 「わたしは男に蹴られたよりも、その眼の色に打たれたように、我知らず何か叫んだぎり、とうとう気を失ってしまいました」

19) 「もう一度夫にこう云いました。「ではお命を頂かせて下さい。わたしもすぐにお供します」

20) 「殺せ」

그야말로 다조마루를 과격한 행동으로 몰아 부칠 정도의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 때 바람이 불던 순간, 모자에 드리워진 천이 치켜 올라가면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주 살짝 여자의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살짝 보였다고 생각한 순간에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
다만,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 때문이기도 했겠죠.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이
여자보살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예를 들어 남자를 살해해서라도 여자는 빼앗겠다고 결심
했습니다.²¹⁾

다조마루가, 동행하던 마사고의 남편 다케히로를 거짓으로 속이고, 숲속으로 유인한 후 불의에 덮친 뒤, 삼나무 아래 묶고 그가 바라보는 앞에서 마사고를 강간한다. 사실 이 때 다조마루는 비로소 여자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있었다. 다조마루는 어느 쪽이든 살아남은 남자를 따르겠다는 여자 즉 마사고의 말을 듣고 생각지도 않았던 남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검거 후 케비이시(檢非違使)²²⁾에게 조사를 받던 다조마루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틀림없이 저는 당신에게 잔혹한 인간으로 보일테지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저 여자의 얼굴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일순간의 타 오르는 듯한 눈동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가령 번개에 맞아 죽는다고 해도, 이 여자를 처로 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²³⁾

다조마루는 여자를 힘으로 빼앗는 것보다도, 여자와 눈을 마주친 것, 즉 타 오르는 듯한 눈동자를 보게 됨으로써 큰 충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능동적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행동과 마주치게 된다.

다조마루는 「가만히 그 얼굴을 바라 본 순간, 나는 남자를 살해하지 않는 한,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이야」²⁴⁾ 라는 각오를 하고, 동시에 남자를 죽이는 방법에 있어서도 비겁하게 살해하지

21) その時風の吹いた拍子に、^{むし たれまぬ}牟子の垂絹が上ったものですから、ちらりと女の顔が見えたのです。ちらりと、見えたと思う瞬間には、もう見えなくなったのですが、一つにはそのためもあったのでしよう、わたしにはあの女の顔が、女菩薩のように見えたのです。わたしはその咄嗟の間に、たとい男は殺しても、女は奪おうと決心しました。

22) 율령제 하의 치안유지와 민정을 소관한 관직. 비위(非法, 違法)을 검찰하는 천황의 사자라는 뜻.

23) こんな事を申し上げると、きっとわたしはあなた方より残酷な人間に見えるでしょう。しかしそれはあなたが、あの女の顔を見ないからです。殊にその一瞬間の、燃えるような瞳を見ないからです。わたしは女と眼を合せた時、たとい神鳴に打ち殺されても、この女を妻にしたいと思いました。

24) じっと女の顔を見た刹那、わたしは男を殺さない限り、ここは去るまい。

는 않겠다는 결의도 하게 된다.

한편, 강간당한 후 먼저 마사고의 생각이 미친 것은, 나무에 묶인 남편을 바라보며 조롱하듯이 웃는 다조마루의 눈길에 대한 남편의 무념함이다. 마사고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에게 다가서려고 하지만, 다조마루의 발길에 차여 쓰러지고 만다. 그 순간 남편의 눈동자에 깃들어 있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을 느끼게 된다.

뭐라고 할 수 없는, 나는 그 눈을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전신이 떨어져 가만있을 수 없어요. 입으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은, 그 순간 눈빛으로 모든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은, 분노도 아니며 슬픔도 아닌, 다만 저를 멸시하는 차가운 눈빛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자에게 차인 것보다도, 오히려 그 눈빛에 차인 듯이 저도 모르게 무언가를 외친 채, 마침내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²⁵⁾

즉 보여지는 존재는 남편이 아니라 마사고 자신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마사고는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차가운 눈초리에 압도되어, 오히려 자신이 보여지는 존재가 되어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사고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남편의 경멸하는 듯 차가운 시선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만 것이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다조마루는 사라지고 없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초리는 여전히 차갑고 증오어린 시선이었다.

여기서 마사고의 남편에 대한 살의가 짙은 것으로 추측된다. 말하자면 마사고에게 처음부터 부여된 바는 철저하게 보여 지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 지성이라 할, 장 폴 사르트르 식²⁶⁾으로 말하면, 일방적인 남자들의 기준에 따라 제압당하고 대타존재(對他存在)로 물러나, 주체라는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R.D렝²⁷⁾은 『분열된 자아 The Divided Self』²⁸⁾(1960)에서 타자의 시선에 따른 대타존재로 전략

25) 何とも云いようのない、わたしはあの眼を思い出すと、今でも身震いが出ずにはいられません。口さえ一言も利けない夫は、その刹那の眼の中に、一切の心を伝えたのです。しかしそこに閃いていたのは、怒りでもなければ悲しみでもない、ただわたしを蔑んだ、冷たい光だったではありませんか? わたしは男に蹴られたよりも、その眼の色に打たれたように、我知らず何か叫んだぎり、とうとう氣を失ってしまいました。

26) 장 폴 사르트르(2005)『존재와 무(無)』살림 p.142
사르트르는 <존재의 무>를 통해 인간의 모습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비극적으로 보여주며, 인간이 그와 같은 비극적 조건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있다.

27) 1927년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 글래스고 대학에서 의학 전공. 1965년 정신치료 공동체 ‘킹슬리 홀(Kingsley Hall)’을 설립. 환자들에게 특정한 행동 강요나 약물치료를 강제하지 않는, 기존 정신과 치료방법과는 다른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존 조현증(정신분열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비판함.
1960년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조현증(정신분열증)환자의 특성을 관찰 저술한 『분열된 자아 The Divided

하는 현상을 석화(石化)라 하고, 그것은 「사람이 돌로 바뀌어 버릴 정도의 공포스러운 하나의 특수 형태」이며, 「살아있는 인간이 죽은 사물로, 「행동에서 인간적 자율성이 결여된 죽은 물체, 돌」로 변화될 것 같은 두려움을 내장하고 있다²⁹⁾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사고는 다조마루로부터는 개인이 아닌 성적욕망의 대상으로서 석화(혹은 물체화)되고 마는 공포, 혹은 남편인 다케히로에게서 멀리 동떨어진 비인격체로 배제되고 마는 공포에 휘둘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마무라 히토시(今村仁司)³⁰⁾는 「폭력의 개념은 배제다」고 하였으며, 「모든 개개의 존재자는 서로 원초적 폭력(배제)을 발휘한다」고 하고, 특히 「눈과 시각은 압도적으로 배제와 물상화의 원동력이다」라고 하였다.³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편 다케히로는 강간당한 처를 강간당했다는 의미에서 이제 서로는 교차할 수 있는 선이 없는 타자(他者)로서의 눈빛, 즉 폭력적 배제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다케히로는 삼나무에 묶여있으면서(杉の根がたへ、縛りつけられ)도 마사고를 계속 응시하고 있다. 질투로 몸부림치면서 마사고를 쳐다보지만, 도적 다조마루의 말에 마사고는 그저 멍하게 얼굴을 치켜들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다. 다케히로는 「나는 아직 그때처럼 아름다운 처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³²⁾라고 하여, 무한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록 몸은 묶여 신체의 자유는 빼앗겼지만, 다케히로에게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의식은 전혀 없다.

다조마루가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³³⁾라고 외치는 마사고를 한발로 차 쓰러뜨리고, 다케히로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조용히 팔짱을 낀 채로 「저 여자는 어떻게 할 생각이지? 죽일까, 그렇지 않으면 살려줄까? 대답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돼. 죽일까?」³⁴⁾ 라고 말한다. 그에 대한 다케히로의 반응은 「나는 그 말만으로도 도적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었다」³⁵⁾ 라는

Self》(1960)는 조현증에 대한 연구를 생물학적, 신경학적 영역의 연구로 넓히는데 크게 기여함. 그 외 저서『자기와 타자』(1961),『광기와 가족』(1964),『경험의 정치학』(1967),『가족의 정치학』(1969), 자서전 《지혜,광기,어리석음》(1985) 등. 검색:네이버 지식백과 로널드 랭(Ronald David Laing)(두산백과)
28) 『찢어진 자기-정상과 광기에 대한 실존적 연구』(1960)로 번역되기도 함. 검색 : [네이버 지식백과] 로널드 데이비드 랭 [Ronald David Laing] (사회학사전, 2000.10.30, 사회문화연구소)

29) 화석화와 탈인격화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haotic_lord(검색: 2015년 3월 18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ruruka&logNo=60021847469>(검색:2015년 3월 18일)

30) 1942년-2007년: 일본 현대철학·사상연구가. 주로 1980년대 이후, 다수 번역과 저술을 통해 프랑스 현대사상을 중심으로 현대사상의 제 조류를 일본에 소개함.

31) 今村仁司(1988)『暴力—現代史上を読む辞典』講談社、現代新書、p.69

32) 「おれはまだあの時ほど、美しい妻を見た事がない」

33) 「あの人を殺して下さい」

34) 「あの女はどうするつもりだ? 殺すか、それとも助けてやるか? 返事はただ頷けばいい。殺すか?」

것이다. 다케히로는 다조마루가 「내게로 눈길을 주었다」³⁶⁾라고 하였지만, 다케히로는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보고 있는 다조마루를 포착하여 객체화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케히로는 삼나무 밑 등에 묶여있으면서도, 자기의 주체를 유지하고 도적의 죄를 용서해 줄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자유로운 주체로서 다조마루와 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케히로는 남편이 아니고 남자로서 마사고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며 일종의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마사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평이 있다.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는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테마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교에 의해서도 여성은 상대 남성에게 매혹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 남편에 따르면 그의 처는 성감과 감언만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적 존재이며(중략), 이와 같은 여성을 사랑하고 있었던 그가 인생에 대해 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³⁷⁾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아부노나카』를 논하는 나카무라 미쓰오씨 측이나, 작중인물인 다조마루도 다케히로와 마찬가지로 기준에서 여성 마사고를 응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마사고의 행동묘사를 통해, 결국 작자 아쿠타가와와 여성에 대한 젠더의식도 자연스럽게 발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그것은 여성멸시, 여성혐오의 미소지니적 사고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4.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은 어디에서 유래하는 것일까.

그 검토를 위해 사상가이며 평론가인 요시모토 다카아키(吉本隆明)의 의견을 참조한다. 요시모토는 「이 작품은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과 의혹의 모티브를 잠재(潜在)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아쿠타가와와『開化の殺人(개화의 살인)』『개화의 양인(開化の良人)』은 삼각관계라는 연애행태를 「후진사회의 개화」가 초래한 문명사적인 갭」이라고 해석한 반면, 「나쓰메 소세키가 그린 주인공의 모습은 그 개화가 생산해 낸 내향성(内向性)의 지적인 과민함의 표현」이라고 했다. 더불어 「아쿠타가와에게는 생활적 윤리는 있었지만 나쓰메소세키(夏目漱石)와 같은 존재론적 윤리³⁸⁾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기술하였다.³⁹⁾

35) 「おれはこの言葉だけでも、盗人の罪は赦してやりたい」

36) 「おれのすがたへ眼をやった」

37) 中村光夫(1970)『『藪の中』から』『すばる』集英社新書、p.102

소세키의 존재론적 윤리에 대해서는 각주 38)에 기초하여 나름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아쿠타가와와 여성 불신은 생활상의 윤리에서 온 것으로, 소설의 모티브 혹은 소설 창작의 한 스타일 일 수는 있어도 나쓰메 소세키와 같은 고유한 존재론적 사상문제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다.

또 한편으로 시노자키 미오코(篠崎 美生子)는, 아쿠타가와 연구에서 이러한 여성불신의 근본에 있는 미소지니(misogyny)적 사고를 파헤쳐서 밝힌 경우는 거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미소지니란 전술하였듯이 극히 간단히 말하면 여성이나 여성다움에 대한 멸시나 편견, 원망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쿠타가와와 경우 실모에게서 따뜻하게 양육되지 못한 채, 창부적 성향을 지닌 여성으로부터 위협받은 사례 등을 통해, 미소지니적 성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 아쿠타가와와 실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떠했을까? 작품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大導寺信輔の半生)』은 1924년 즉 아쿠타가와가 자살하기 약 3년 전 완성된 소설이다. 그 작품명대로 신스케라는 인간의 반생을 되돌아보는 것이지만, 그 인간이 아쿠타가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은 그 내용으로 미루어 추정된다. 거기에는 그의 모친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려져 있다. 아쿠타가와와 모친의 젖을 먹은 적이 없고 우유로만 자라났다. 이에 대해 그는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⁴⁰⁾이라고 하였다. 그 뒷면에는 그의 인생을 꿰뚫듯 관철되고 있는 고독이 숨겨져 있다. 그 발단은 『다이도지 신스케의 반생』에서 「나의 모친은 광인이었다」⁴¹⁾라는 기술을 통해 그에게 모친은 어떤 존재였는지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정신의학자인 후쿠시마 아키라(福島 章)는 이것이 「아쿠타가와에게 3중의 그늘을 드리웠다」고 기술하고⁴²⁾, 첫째는 생물학적 유전의 영향을 들었다. 그것은 만년의 아쿠타가와 자신도

38) 「漱石の小説の人物たちが突発的な変貌を示すのは、一つは女をめぐることであり、いま一つは金をめぐってである。(…)実存主義の「実存」は全く家族や具体的な生活から切り離された存在であるが、特殊な状況においてのみそうあるにすぎないので、一般にこういう「実存」は必ずどこかで誰かの犠牲によって、たとえば金銭的に支えられているものである。漱石の小説が実存主義やその類の論理の網の目をくぐる、不透明で粘々とした何かを残しているのは、彼がそういう論理の裏目から出発するほかなかったからだ」(소세키 소설의 인물들이 돌발적인 변모를 보이는 것은, 하나는 여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돈이다.(…)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실존이란, 가족이나 구체적인 삶에서 완전히 분리된 존재이지만,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만 그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실존은 반드시 어디선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예를 들면 금전적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이다. 소세키의 소설이 실존주의와 그러한 종류의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불투명하게 끈적한 무언가를 남기고 있는 것은, 그가 그러한 논리의 반대효과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柄谷行人「<意識>と<自然>」雑誌初出版)

39) 吉本隆明(2004)『超恋愛論』大和書房, p.86

40) 「憎まずにはいられぬ運命」

41) 「僕の母は狂人だった」

42) 福島章(1983)「病跡学から見た芥川龍之介」『国文学解釈と鑑賞』48(4), pp.169-174

통합실조증⁴³⁾(統合失調症)상태라고 생각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자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후쿠시마씨가 「어린 아이의 성격형성에 기본적인 안심감·자신감을 길러준다는 것이 곤란하다」고 기술하였듯이, 모친과의 만족한 접촉이나 수유를 받지 못했던 아쿠타가와는 이미 인간관계 형성에 근본적 상처를 받게 되는 체험을 유아기에 하고 있다. 세 번째 정신병에 대한 공포이다. 당시 정신병은 오로지 유전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되던 시대였다. 아쿠타가와 자신도 정신병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과 공포 속에 그는 언제나 사로잡혀 있었다. 이처럼 정신병자였던 모친이 그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에 대해서는 가히 가늠 짐작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추구하는 어머니상의 마지막 도달점은 결국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길러내는 모친이다. 하지만 아쿠타가와에게는 파괴하고 싶은 공포의 대상으로서 모친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따라서 엄마를 잃은 유년기의 아쿠타가와와 심중은 이미 죽음을 향한 욕구충동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 모른다. 수유를 경험해 보지 못한 그로서는 모친이라는 그야말로 좋은 대상을 스스로의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며, 그것은 즉 스스로 좋은 부분을 보호·유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부적 성향을 지닌 아쿠타가와와 주변여성 인물로서는 히데 시게코(秀 しげ子)를 들 수 있다. 시게코는 아쿠타가와에게는 숙명의 여인이라 할 만하다. 시게코를 소재로 한 작품은 『어느 바보의 일생(或阿保の一生)』의 <광인의 딸(狂人の娘)>, 『하구루마(齒車)』의 <복수의 신(復讐の神)> 등을 들 수 있으며, 여자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을 그린 『아키(秋)』라는 소설은 시게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착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아부노 나카』에서 여주인공 마사고는 시게코를 거론하지 않고서는 내면을 들여다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히데 시게코를 주요논점으로 아쿠타가와와 작품 속에 녹아든 그녀의 인식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분석한 적이 있으며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⁴⁾ 우선 아쿠타가와 자신이 수인(愁人)이라고 부를 만큼 매료되었던 시게코의 용모는 도회적이면서도 우아한 매력을 지닌 세련된 여성이었다. 하지만 작품을 통해 아쿠타가와와 시게코의 이미지, 즉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어느 바보의 일생』중 「광인의 딸」에서는 심도 있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설명과 두 사람이 불륜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쿠타가와와 시게코의 이상한 성적기호(性的嗜好)와 후의 스토키 행위로 이어지는 편집성(偏執性)에 대해 간파하고 「광인의 딸」로 표현함으로써, 심한 증오의 대상으로 그려내었다. 『하구루마』에서는 「복수의 신」으로 등장, 그녀는 교살하고 싶은 충동을 감출 수 없을 만큼의 대상으로 반추되고 있다.

43) 통합실조증(독일어/Schizophrenie, 영어/schizophrenia)이란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으로 불리던 정신질환의 명칭. 이 증상의 상당파는 정신과이며, 정신과 의사가 진찰에 임함.

44) 감영희(2014) 『아쿠타가와와 대 여성관계-히데시게코를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참조

즉 『하구루마』의 「복수의 신」에서 언급하는 「광인의 딸」은 시게코이며, 직설적 상황 묘사를 통해, 그녀가 주장하는 아쿠타가와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비록 아쿠타가와와 작품 속 상황이지만, 현실의 아쿠타가와와 시게코에 대한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또한 오카모토 카노코의 소설 『쓰루와 야미키(鶴は病みき)』는 아쿠타가와와 히데시게코, 가노코 부부를 모델로 한 자전적 소설로서, 100% 사실은 아닐지라도 대략 사실과 들어맞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등장인물 중, 모델 요코(葉子)는 가노코 자신이며, 아사가와(麻川)는 아쿠타가와를, X부인은 시게코를 그려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작품 속 학(鶴)은 아쿠타가와를 상징한다.

아쿠타가와와 일기 『가키구츠모쿠로쿠(我鬼窟目録)』에 따르면 아쿠타가와와 시게코 사이에는 2번의 밀회와 한 번의 정사가 있었다. 친구 오아나 류이치(小穴 隆一)의 저술 『두개의 그림-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회상(二つの繪-芥川龍之介の回想)』에는 시게코와의 단 한 번의 정교 사실과, 그녀의 동물적이고 과격한 욕구 앞에 질려버린 심정을 토로했다. 유서에는 「나는 과거 생활의 총결산을 위해 자살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큰 사건이었던 것이 29세 때 히데부인과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분명히 기술하고, 시게코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그로 하여 자살의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아쿠타가와와는 제자 격인 작가 난부 슈타로(南部修太郎)⁴⁵⁾, 친구 우노 코지(宇野浩二)⁴⁶⁾와 불륜상대를 같이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수치심으로 죽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아쿠타가와와 시게코의 스토커와 같은 집착 앞에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면서, 마침 불륜으로 피소된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⁴⁷⁾의 투옥 소식을 전해 듣게 된다. 아쿠타가와 자신이 그 같은 경우가 된다면 미쳐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신병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아쿠타가와와는,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발작 즉 발광(發狂)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신경쇠약을 가중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아쿠타가와와 실모와 히데 시게코는 아쿠타가와에게는 숙명의 여성들이었다. 일본학계에서는 아쿠타가와와 자살을 두고 여러 정황을 거론한다. 하지만 그 어느 정황보다도 그의 자살에 실모와 시게코와의 관계가 깊이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아쿠타가와와 경우 실모에게서 따뜻하게 양육되지 못한 채, 창부적 성향을 지닌 여성으로부터 위협받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미소지니적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45) 南部修太郎(1892-1936) : 소설가. 아쿠타가와를 스승으로 존경, 小島政二郎, 滝井孝作, 佐佐木茂索와 함께 「龍門の四天王」으로 불림.

46) 宇野浩二(1891-1961) : 소설가·작가

47) 北原白秋(1885-1942) : 시인, 동요작가, 가인. 근대일본을 대표하는 시인

것이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아쿠타가와와 실모나 히데시게코로부터 받은 영향이 바로 「아쿠타가와像으로 감정이입 되어진 연구가 버젓이 통용되어 왔다」⁴⁸⁾는 것이 시노자키씨의 견해이다. 즉 아쿠타가와와의 개인적 레벨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노자키씨의 지적에는 동조한다. 아쿠타가와와의 마사고像에 나타난 여성적 성향이, 아쿠타가와와의 개인적 여성체험만으로 여성혐오적 발상으로 결실되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사회현상, 교육, 도덕적 관념, 그리고 다양한 만남과 가족일가, 남녀관계 등도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노자키씨가 지적하는, 기존의 제 연구들이 한결같이 아쿠타가와와의 개인적 레벨에 의한 검토만은 아니었을 것이며, 그러한 추구에는 그 나름의 논리와 주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를 한꺼번에 「아쿠타가와像으로 감정이입 된 연구가 버젓이 통용되어 왔다」는 ‘버젓이’라는 표현으로 그동안의 여러 연구들을 폄하하기에는 다소 과한 언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아부노나카 속 마사고를 둘러싼 남자주인공들의 심리상태는 아쿠타가와와의 여성불신과 의혹의 모티브가 잠재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마사고의 강간을 둘러싼 주위 남성들의 반응은 곧 아쿠타가와와의 여성에 대한 젠더의식의 반영인 것이다. 삼각관계를 유지하며 버젓이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면서도, 그것을 수치로 느끼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성, 사회적 지위나 배경이 사랑을 선택하는 조건이 되는 여성은, 결국 아쿠타가와와의 여성멸시적 미소지니적인 젠더의식이 반영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여성은 움직이는 동물적 존재라고 아쿠타가와와는 전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순수한 애정을 갈망했던 아쿠타가와와가 여성에 대해 절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아쿠타가와 자신도 여성을 사랑하는 남자이지만, 결국 남성적 관점에서 여성을 바라보며 간단히 극복할 수 없는 미소지니적 사고에 대해 자신 스스로도 힘들어했을지도 모른다.

다만, 아쿠타가와와의 개별적 특수한 문제나 체험 혹은 성의식에만 의존하지 않는, 동시대의 성의식이라는 큰 틀과의 관련 속에서 아쿠타가와와의 여성의식을 새롭게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8) 篠崎美生子(2004)「ゼンダー芥川と芥川研究を問い直す鍵」『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5. 결론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에 여성불신과 의혹의 모티브가 잠재되어 있다면, 그러한 경향이 가장 잘 반영된 작품은 『야부노나카』일 것이다. 이상에서 다조마루의 마사고에의 강간과 그것을 지켜보는 다케히로의 시점을 통해, 작가 아쿠타가와와 여성젠더의식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흔히 남성들의 여성혐오적 사고를 말할 때 미소지니(misogyny)라는 표현을 쓴다. 다조마루는 마사고를 강간 후 바로 그 자리를 떠나고자 하였다. 즉 마사고에 대한 관심은 그 현장에만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마사고를 「쳐로 삼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자 자신의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지만, 다시 남편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고자 변심한 마사고에 대해 좋은 감정은 사라지고 있다. 다케히로는 스스로가 자초한 마사고의 강간 참사를 후회하고 사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조마루로부터 받은 멸시의 시선을 그대로 마사고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다조마루의 마사고에 대한 의식변화가 매우 간단히 바뀌는 것, 또 다케히로가 마사고를 멸시하듯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쿠타가와와 경우 실모에게서 따뜻하게 양육되지 못한 채 창부적 성향을 지닌 여성으로부터 위협받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미소지니적 성향은 아쿠타가와가 그려낸 마사고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조마루와 다케히로 두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남자 주인공들의 심리상태는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과 의혹의 모티브가 잠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소지니라는 것은 여성혐오라는 의미이지만, 극단적으로 그것은 여성멸시이다. 마사고를 통해 남성에게 의한 여성멸시. 그리고 여성에게는 스스로 자기혐오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 보이지 않는 구조와 그 영향 아래 있는 남성·여성 의식·행동을 상세히 분석해 보면, 여성을 실제로는 물건처럼 취급하는 남성들의 실태를 다조마루와 다케히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가부장제 감시 하에 있는 일본의 가족제도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여성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남성들의 그 뒷면에는 여성멸시와 자기현시(自己顯示)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으로, 마사고의 강간을 둘러싼 주위 남성들의 반응은 곧 아쿠타가와와 여성에 대한 젠더의식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적어도 데고메 소설 『야부노나카』로 보는 아쿠타가와와는 여성혐오적 사상계보를 잇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야부노나카』외에 아쿠타가와와의 데고메 소설로 들 수 있는 것이 『오토미의 정조(お富の貞

操』를 들 수 있다. 『야부노나카』와 『오토미의 정조』를 함께 검토분석함으로써, 보다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차기를 기하고자 한다.

【参考文献】

上野千鶴子(2010)『女ざらいーニッポンのミソジニー』紀伊国屋書店
 _____ (2010)『女ざらいーニッポンのミソジニー』紀伊国屋書店
 篠崎美生子(2005)「資料室」『芥川龍之介』翰林書房
 장 폴 사르트르(2005)『존재와 무(無)』살림
 篠崎美生子(2004)「ゼンダー芥川と芥川研究を問い直す鍵」『国文学解釈と鑑賞』別冊
 吉本隆明(2004)『超恋愛論』大和書房
 上原早苗 外(2001)『男同士の絆ーイギリス文学とホモソーシャルな欲望』名古屋大学出版会
 小此木啓吾・岩崎徹也 編訳(1996)『羨望と感謝』メラニー・クライン著作集5、誠信書房
 芥川龍之介(1996)『芥川竜之介 全集/第8巻』岩波書店
 今村仁司(1988)『暴力ー現代史上を読む辞典』講談社、現代新書
 福島章(1983)「病跡学から見た芥川龍之介」『国文学解釈と鑑賞』48(4)
 奥本大三郎(1981)「男の領分ー『驟雨』詳論ー」『ユリイカ』青土社
 芥川龍之介(1971)『芥川龍之介全集』筑摩書房 참조
 中村光夫(1970)『『藪の中』から』『すばる』集英社新書
 감영희(2015)「야부노나카 소고찰(1)-다조마루의 자백을 통해 본 마사고像」『日本近代學研究』第48輯
 _____ (2014)「아쿠타가와와 대 여성관계-히데시게코를 중심으로」『日本文化研究』第52輯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haotic_lord(검색: 2015년 3월 18일)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ururuka&logNo> 검색일:2015.03.18
 「藪の中」([wikipediahttps://ja.wikipedia.org/wik](https://ja.wikipedia.org/wik)) 검색일: 2015.08.30
<http://ja.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4.12.05
<http://kin.naver.com/qna/detail.nhn> 검색일: 2014.12.20

논문투고일 : 2015년 09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9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10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10월 19일

<要旨>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

- 데고메소설로서의 『야부노나카』를 중심으로 -

아쿠타가와와 젠더의식에 여성불신과 의혹의 모티브가 잠재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향이 가장 잘 반영된 작품은 『야부노나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조마루의 마사고에의 강간과 그것을 지켜보는 다케히로의 시점을 통해, 작가 아쿠타가와와 여성젠더의식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다조마루의 마사고에 대한의식 변화가 매우 간단히 바뀌는 것, 또 다케히로가 마사고를 멸시하듯 차갑게 바라보는 시선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아쿠타가와와 경우 실모에게서 따뜻하게 양육되지 못한 채, 장부적 성향을 지닌 여성으로부터 위협받은 사례를 찾아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미소지니적 성향은 아쿠타가와가 그려낸 마사고를 통해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다조마루와 다케히로 두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남자 주인공들의 심리상태는 아쿠타가와와 여성불신과 의혹의 모티브가 잠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소지니라는 것은 여성혐오라는 의미이지만, 극단적으로 그것은 여성멸시이다. 마사고를 통해 남성에 의한 여성멸시. 그리고 여성에게는 스스로 자기혐오의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 가부장제 감시 하에 있는 일본의 가족제도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여성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남자들의 그 뒷면에는 여성멸시와 자기현시(自己顯示)가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으로, 마사고의 강간을 둘러싼 주위 남성들의 반응은 곧 아쿠타가와와 여성에 대한 젠더의식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데고메 소설로서 『야부노나카』로 보는 아쿠타가와와 여성혐오적 사상계보를 잇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Akutagawa's gender awareness

- Focused on Yabunonaka, as a novel rape -

If Akutagawa's motif of gender awareness for women's mistrust and suspicion exists, such tendencies would be best reflected in *YABUNONAKA*. In this study, Akutagawa's gender awareness for women was analyzed through Akutagawa's Masago's rape and Takehiro's perspective as he witnessed this act. Tazyomaru's awareness change for Masago occurs so easily. Furthermore, the fact that Takehiro looks down upon Masago, in the case of Akutagawa, is due to the lack of compassion from his biological mother. And this is evident through the threatening events experienced by a prostitute. As a result, the propensity to smile is portrayed through Masago by Akutagawa. Whether this was done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it led both men, Tazyomaru and Takehiro, to their deaths. It can be concluded the men's psychological state can be a motif of Akutagawa's women mistrust and suspicion.

Misogyny means hatred for women, in other words, it means to look down upon women. Men's attitude of looking down upon women and women's self-hatred is transparent through Masago, therefore, a sectional glimpse of Japan's family structure can be seen under its patriarchy. It is important to be aware and mindful of the existence of men's condescending manner and self-display behind their faces. I think the response of men who surrounded Masago's rape is a reflection of Akutagawa's women gender awareness. It can be concluded that Akutagawa is a writer who carries on the idea of misogynist as it is evident in the novel called *YABUNONAKA*.